

따뜻한 5월 '가족과 나누는 클래식'

전주 문화공간이룸, 5월 8일 피아노 듀오 '투리' 리사이틀 개최

지난해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받았던 피아노 듀오 '투리(TU:LEE)' 리사이틀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전주 문화공간이룸은 오는 5월 8일 오후 7시 30분, 'TU:LEE Piano Duo 2nd. Recital'을 개최한다. 일본 시계기 오쿠보 트리오 앨범 발매 공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기획 공연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기획력과 클래식 전문 공연장의 정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다.

클래식 음악에 최적화된 음향 구조와 밀도 높은 객석 환경을 갖춘 문화공간이룸은 연주자의 호흡과 미세한 음색까지 전달하는 공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음악의 디테일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재관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공연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음악적 완성도를 고려한 공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아니스트 이윤정과 이영신으로 구성된 '투리(TU:LEE)'는 오랜 시간 축적된 음악적 교류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앙상블을 구축해 온 듀오다. 이윤정은 이화여자대학교와 러시아 그레진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왔고, 이영신은 선화예술고와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유럽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을 이수하며 국제적인 연주 경력을 쌓아왔다.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을 지닌 두 연주자는 긴 시간 호흡을 맞추며, 두 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음악적 대

화를 밀도 있게 완성해 오고 있다. 이날 무대는 문화공간이룸 이사장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이윤정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공연장의 기획 방향과 실제 연주가 맞닿는 자리로, 이룸이 지향하는 음악적 가치가 무대 위에서 구현된다.

프로그램은 두 대의 피아노와 네 손을 위한 대표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러시아 작곡가 스티리도프의 '눈보라(The Snowstorm)'와 슈베르트의 '환상곡 F minor D.940'이 연주된다. 서정성과 극적인 구조가 교차하는 이 작품들은 두 연주자의 긴밀한 호흡과 음악적 서사를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이 무대에 오른다. 두 피아노가 대등하게 대화하듯 전개되는 이 작품은 피아노 듀오 레퍼토리의 정점으로 평가받으며, 2026년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한다. 공연의 마지막은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로 장식된다. 화려한 테크닉과 극적인 전개를 통해 두 피아니스트의 에너지와 앙상블이 극대화될 예정이다.

문화공간이룸 이윤정 이사장은 "지난해 공연 이후 관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두 번째 리사이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다"며 "한층 더 깊어진 음악적 호흡과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투리(TU:LEE)' 리사이틀 포스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룸은 음악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달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이룸에서 만날 경험할 수 있는 밀도 높은 공연을 통해, 전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무대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본 공연은 전석 3만 원이며, 네이버 예약 및 전화 예매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이룸 카카오톡 친구를 대상으로는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는 문화공간이룸(063-223-5323)을 통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3)

천도하여 가세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생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한나절이 다 걸려서 달구지는 황전마을에 도착했다. 외할머니와 외숙부는 명희가 이끄는 대로 학살현장으로 갔고, 외할머니는 소복차림에 고깔을 쓰고 청피와 흥피를 허리에 둘렀다.

간단하게 재물을 차려놓고 외할머니는 굿을 시작했는데 무가를 선창하면 외숙부가 장구를 쳐 무가에 힘을 돋아줬다. 명희는 굿 내내 두 손을 합장하고 연신 고개 숙여 가족들과 많은 영령들이 부디 극락왕생하기를 빌었다.

굿은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쇧감굿의 연행 순서인 청신과 오신, 축원, 배송을 한 절차로 진행했다.

"거기가 어디라고 간단 말이나.....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너를 보내고 어이 살라고..... 간단 말이나..... 어서 오거라..... 어서 와..... 산도 넘고 물도 건너 어서 오거라....."

부정풀이와 청신의 무가를 부르면서 외조모는 징을 들고 주검 현장의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고, 외숙부는 굿거리, 중모리, 중중모리, 진양장단으로 장구를 치면서 외조모의 살풀이에 화답하거나 추임새를 넣었다.

"천도하여 가세..... 천도하여 가세..... 서방정도 극락왕생 천도하여 가세....." 한나절을 달구지에 흔들리면서 왔지만 외조모나 외숙부는 피로한 기색 없이 이마에 송골송골 땀을 흘리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을 불러 달라고 천도하는데 혼신을 다했다.

굿이 다 끝나갈 무렵 명희는 봉림마을을 생각했다. 새벽에 외조모가 황전에 가지는 말을 했을 때부터 명희 머릿속에 봉림도 떠올랐다.

봉림도 같이 해달라 할까 말까 달구지를 타고 오는 내내 갈등하고 있었다. 해달라 고 말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정한 눈으로 보면 좋게 봐줄 상대가 아니었지만 강남준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릴 수 없는 상대였다.

"봉림에도 가자."

모든 굿을 마친 외할머니는 땀을 닦아내며 무심한 듯 말했다. 명희의 답답했던 속을 외조모가 풀어주고 있었다. 외숙부는

잠깐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얼굴을 풀었다.

봉림과 황전의 싸움을 알고 있고, 봉림의 강용대에 의해 황전에서 10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외숙부는 잠깐 얼굴을 굳혔을 것이다.

하지만 삶을 떠난 죽음은 모두에게 다 똑같은 것. 외숙부는 외조모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는 걸 느낀 것이다. 지치고 피곤 할 만만치 않은 명희를 앞세워 봉림 사람들이 희생된 장소에 가서 황전에서 했던 그대로 쇧감굿을 진행했다.

황전과 봉림에 다녀온 이후 외조모 집에는 쇧감굿을 해달라 부탁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외조모는 마다하지 않고 먼 곳이라도 가서 약식으로 쇧감굿을 해줬다.

명희도 입암택과 동행했는데 굿을 해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입암택 혼자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1950년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 초순경에 고창지역에서는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입암택은 간단히 곡식만 받고 굿을 해줬으며 곡식을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다.

심원면 동호리 바닷가, 해리면 좌치포구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는데 특히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육산저수지 부근에서는 공음면 주민 4,500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전남 장성 지역 빨치산 중대가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에 들어와 숙식을 제공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주민들은 선산마을과 선인봉, 뽕죽골 등으로 피란하였으나 모두 붙잡혀 육산저수지 앞 밭에서 기관총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남원시, 춘향제 '패밀리 존' 조성

사랑의 광장 · 요천 수변공원 일원에 공연 · 체험 등 복합 문화공간 운영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6회 남원 춘향제 기간,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을 위해 사랑의 광장과 요천 수변공원 일원에 '패밀리 존'을 조성하고, 체험과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미니 바이킹과 디스코 광장 등 역동적인 놀이시설을 배치해 체험형 놀이공간을 구축, 어린이날 대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공연은 물론, 전곡 댄스 및 밴드 경연대회를 개최해 젊은 층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ICT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드론축구, 드론농구, 드론레이싱 등으로 구성된 '남원시장배 유소년 드론 켈링'을 비롯해 춤추는 AI 로봇팔, 드론 리얼레이싱, 증강현실 클러링 체험, 휴머노이드 GI 등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펼쳐진다. 요천 수변공원에는 40m 규모의 초대형 메가 에어바운스를 비롯한 총 22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되며, 푸드트럭과 휴게 쉼터를 곳곳에 배치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당놀이 신뎃파전' 김제서 공연

판소리와 국악이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 '마당놀이 신뎃파전'을 오는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자. 김학용, 서정금, 이소연, 이광복 등 대한민국 최고 명창들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악기가 하나된 국악관현악단, JTBC 풍류대상 TOP5 강성현 연희단, 무용단 등 35명의 출연진들이 함께 만들어 판소리와 국악이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품으로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마당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풍자와 해학속에서 관객들은 가려운 곳을 긁는 것처럼 시원한 웃음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권 예매는 2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